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7호 【루계 제26041호】 주체107(2018)년 6월 1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여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하서한과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축하서한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습근평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중책을 지니고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중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의 련이은 뜻깊은 상봉이 특별한 동지적우의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정세변화와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이 줄기차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하시고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습근평동지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께서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가정의 행복을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핵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이것은 김정일각하의 자주리념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많은 로작들에서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할데 대해 밝히시였으며 이를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으로 견지해오시였다. 뿐만아니라 뜨거운 민족애와 통이 큰 결단으로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김정일각하의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뜻의 결정체이라고도 할수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반도에 대결과 불신의 기운이 짙어가던 지난세기 말엽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전체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넘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6.15통일시대라는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캄보쟈국카라지오방송도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을 칭송하고 오늘 조선통일의 전망은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제시여 밝고 창창하다, 조선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10일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의 제레따로주에서는 경축집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메히꼬시에서는 연적토론회가 5월 31일과 6월 1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메히꼬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이 상영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제레따로주위원회 비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진실하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몸소 판문점 남측지역에까지 나가시여 전세계를 놀래우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데 대해 찬양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을 따라 백승떨쳐갈 철석의 의지

지난 20여년간 618만 5천여명이 당창건기념탑을 참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기념일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으로는 참관자들의 물결이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주체84(1995)년 10월 당창건기념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지난 20여년간 618만 5천여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이것은 일편단심 위대한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또한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위대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에 대한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당창건기념탑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혁명적의리에 떠받들려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기념탑형성과 건립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수십차에 걸쳐 주시며 당창건기념탑을 주체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우리 당의 거대한 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탑으로,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기념비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몸소 주야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리하여 당창건기념탑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다.

이에 대한 해설을 감명깊게 들으며 참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참관자들은 또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를 보여주는 기념탑을 돌아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참관자들은 당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마치와 낫과 붓을 탑신으로 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원형띠,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우리 당의 력사를 보여주는 기단 등으로 이루어진 기념탑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이곳을 참관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세상에는 당도 많고 탑도 많지만 당을 상징하는 탑은 조선에만 있다고 하면서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최고급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있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탑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백전백승의 영광스러운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은 오늘 또 한분의 선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백배해지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의 격찬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을 끝없이 찾는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총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할 업적을 전추만대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는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시에서는 150대의 화물자동차들에 수백t의 과철을 실어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는데서 금속공업부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도록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더 많은 과철을 수집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이들은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직관선전, 해설선전사업을 창신하게 벌려 과철수집사업이 군중적인 운동으로 벌어지도록 하였다.

만경대구역과 중구역, 서성구역과 순안구역,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을 비롯한 구역들에서 5월 과철수집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6월에도 군중적운동으로 많은 과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만경대구역건물관리소와 제과도매소, 식료품종합상점, 중구역연료사업소, 평양어린이옷공장, 중구역화초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철수집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떠받드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임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서성구역의 책임일군들은 단위들에 나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창신하게 벌리고 더 많은 과철을 수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구역앞에 맡겨진 6월 과철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어린 많은 과철과 지원물자들을 받아안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중요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채취기계공업부문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채취기계공업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1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진천착암기공장, 장산전기공장을 비롯한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달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일군들은 아래단위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옳은 기업전략, 경영전략밑에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일터마다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릴 불타는 열의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능률높은 뽐프들을 생산하기 위한 창조투쟁을 활발히 벌려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기술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각 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제품의 질과 조립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중요대상설비와 부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상설비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새형의 능력이 큰 권양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장에서도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설계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으며 로동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장치와 부분품조립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권양기제작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성능높은 착암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마련되어있는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드높이 착암기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희령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석탄공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곳 생산자들은 어려운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란차와 권양기, 사슬콘베아를 비롯한 설비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그밖의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해 기세를 올리며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뿌찐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영남위원장이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로조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 오랜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과정이 시작되고 평화의 전망이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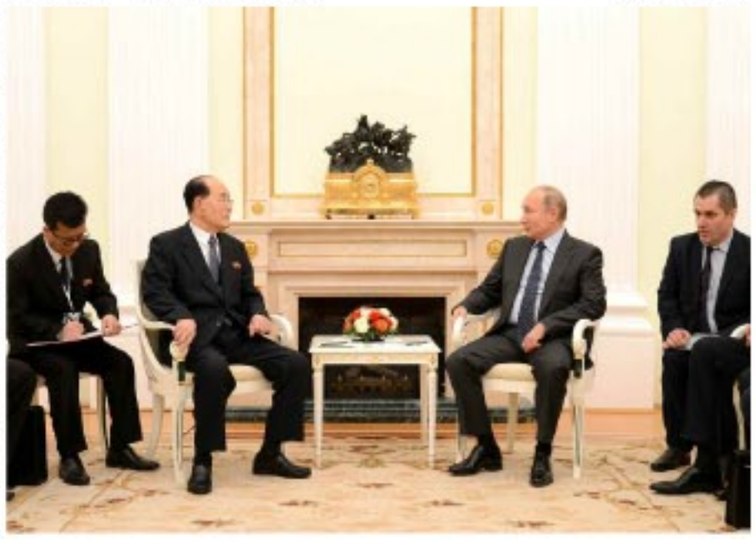
김영남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외무상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고위급대표단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여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신흥철 외무성 부상, 김형준 로씨야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 유리 우사꼬브 대통령보좌관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숭고한 애국의 대장정으로 민족존엄과 평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지금 삼천리강토와 온 지구촌은 세기적대사변으로 길이 빛날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에 접하여 충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존엄과 긍지가 만리창공에 차넘치는 격동적인 이 시각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시대의 최정상에 올려세우시고 자주통일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남녘민중의 열화같은 흠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랭국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시려고 몸소 머나먼 애국애족의 대장정을 단행하시여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것은 민족의 화해와 번영, 통일을 위한 거족적흐름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시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금세기 최대의 사변입니다.

대우주 민족사에 전쟁발발의 말로 아프게 기록된 이 6월에 지구상의 마지막랭전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평화의 신록을 맞이한것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의 새 세상,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표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안아온 꿈같은 현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온 겨레와 인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조미수뇌상봉장에 나오실 때 우리 남녘땅은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였고 환희의 열파속에 끓어번졌습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민중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기적회담을 마련하신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행운을 시시각각 폐부로 절감하였습니다.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의미심장한 음성에서 민족과 평화에 대한 절세위인의 비상한 결심과 숭고한 책임감을 구구절절 새겨안은 우리 민중입니다.

조미 두 수뇌분들이 서명한 력사적인 공동성명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며 전쟁의 위협과 불안을 가시고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보다 휘황한 미래와 희망을 안겨준 특기할 리정표입니다.

하기에 지금 세상사람들은 이번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초현실적이며 력사적인 사건》,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이라고 격정과 찬사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이 땅의 경향각지에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민족의 령수, 세계평화의 영웅으로 격찬하는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참으로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신 이번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70여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며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시대의 물줄기를 정의와 평화에로 돌려세운 전무후무한 대공적으로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녘겨레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수 없었던 조미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시여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일구월심 받들고 따를 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바야흐로 눈앞에 펼쳐질것이라는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새겨안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자주통일의 휘황한 전로를 펼쳐주시고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조치로 대결과 적대가 평배하였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훈풍을 안아오시였습니다.

특히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확고한 통일의지와 애국의 대용단으로 두차례의 남북수뇌상봉을 진행하시고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5.26합의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주신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특기할 공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비상한 속도와 과격의 련속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가는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국무위원장님께서 오늘은 또 미국을 상대로 가장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증유의 대업을 이룩하시여 우리 민족과 인류자주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용담대하시고 비범무쌍하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절세의 위인상에서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점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는것이 아니라 령수의 위대성에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다시금 가슴뿌듯이 절감하고있습니다.

력사적인 이번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령도밑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있는 주체조국의 존엄과 국력의 일대 과시이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만방에 떨친 남북공동의 경사입니다.

진정 민족사와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특대사변을 일으키시고 조미관계수립과 세계평화를 위한 거창한 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최대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영웅, 정의의 수호자이시며 민족만대의 번영과 인류미래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신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경향의 각계 민중은 세인의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무상의 영광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민족자주위업을 위한 거족적인 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민족존엄과 자주통일의 상징으로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르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번 조미수뇌상봉에서 이룩하신 세계사적대업적을 전심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이 땅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력사적흐름을 보다 힘있게 떠밀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조국통일로선은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위대한 기치이며 승리의 표대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확고한 통일의지와 애국의 대용단으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활성화해나가며 그에 도전하는 국우보수세력을 비롯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시대와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온 겨레와 인류를 자주와 정의의 길로 향도하시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세계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충정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7(2018)년 6월 15일 서 울

오직 사회주의한길로

이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 혁신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선식풍연무대들, 협동벌마다를 뜨겁게 달구어주는 사회주의경쟁열풍…

사회주의농촌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을 대할수록 이 나라 포전들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리는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회주의원칙을 벗어나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주체98(2009)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해안의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멀리전에도 오시여 벌방지대의 협동농장들과 사회주의경쟁을 하도록 떠밀어주시였고 그날에 하신 약속대로 얼마후에는 성능높은 트락또르들도 보내주시면서 경쟁열의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농사형편을 알아보시려 또다시 찾아오신것이였다.

농장의 전경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다.

양지바른 산기슭을 따라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농장마을과 가없이 펼쳐진 푸른 논벌, 전야마다에서 세차게 울리는 농기계들의 동음…

정겨운 눈길로 농장전경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트락또르들의 가동상태와 모내기진행정형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그곳 관리위원장은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장군님, 우리 농장에서 모내기를 빨리 끝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장군님의 덕분입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것이 아니라 농장원들이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일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펼차를 타고오면서 벌판에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모내기를 하는것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본태가 튼튼히 살아 활기있게 숨쉬는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리도 기뻐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농민들의 애국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리형태이라고 하시면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줄대같은 모가 푸른 주단마냥 펼쳐진 드넓은 벌은 볼수록 사회주의의 기상으로 약동하였다.

오랜 시간 논머리에서 일군들에게 농장이 경쟁에서 이길 보책들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만하지 말고 풍년작황을 마련하라고, 가을에 가서 이 농장에서 올해농사를 잘 지었다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농장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정겨운 눈길로 농장전경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길에서 조금이라도 탈선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의 길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에서는 오직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갈 억척의 맹세가 불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농촌경리부문뿐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심장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투쟁의 표대, 강령적지침이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철산봉의 메아리

경제건설대진군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자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결사의 신념과 기개로 떨쳐나선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기풍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어느해 여름 무산광산(당시)에서 있은 일이다.

철산봉은 복양에 불덩이처럼 달아있었다. 례년에 없는 고온현상이였다. 하지만 무산의 광부들은 당이 제시한 정광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광장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광산을 도와주기 위하여 파견되여온 한 일군도 공사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 일군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는 기별을 받고 급히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 고산지대에서 고온현상이 계속되였다고 하는데 그곳 광부들이 격정되여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일군은 정광생산과 채광장확장공사추진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전부인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은 망설이였다. 무산땅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정광생산문제 하나뿐이여서 그밖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할념을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살림집건설정형에 대하여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무산광산이 중요하기때문에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기술로력을 보내준 당의 뜻을 받들고 그들의 살림집문제를 우선 관심하여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의 이런 사업태도에 대하여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살림집부터 지어 그들의 생활부터 안착시켜야 하겠다고, 광부들은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데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과업을 받고 내려간 일군이 그래서야 되겠는가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동무들을 내려보낼 때에도 강조하였는데 정광이 거저 쏟아져나오는것이 아니라고, 정광을 생각하기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광부들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살림집들을 겨울철전으로 아담하게 잘 짓되 가구도 일식으로 그쯘히 갖추어주라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하신 당부가 일군의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었다.

생산보다 로동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더 중시하신 우리 장군님, 그이의 당부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메아리로 철산봉마루에 끝없이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채 희 성

몸소 가르쳐주신 과학농사방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여 몸소 마련하여주신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주체농법으로 명명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천군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시며 포전으로 나가시였다. 한동안 벌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논벼와 강냉이 정당 수확고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땅에 모래기가 많은데다가 찬물이 스며들어 농사가 잘 안되는 고장이였다.

농장일군은 정보당 평균 논벼와 강냉이수확고를 보고드리였다. 다른 농장들에 비해볼 때 그리 높지 못한 수확고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땅을 걸구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고 시비체계는 어떻게 세웠으며 정당 조기수는 얼마나 보장하였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농장에서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턱대고 질소비료 한가지만 많이 치던 그릇된 방법을 버리고 시비체계도 과학적으로 세워 모든 포전마다 그 땅의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비료를 알맞게 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농장일군은 과학농사에 대한 강의를 받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장땅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지금은 하늘이나 땅을 믿고 농사짓는 때가 아니라고, 과학농사의 시대이라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알곡을 두곱은 더 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중요한 가을을 가꾸시려 한평생 이 나라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신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세해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품들여 꾸려주신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려고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려와서였다.

소물도 휘어든다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공장을 찾아주시고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들어가보아야지 무엇때문에 문밖에서 보겠는가고 하시며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화장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초평을 받는 《은하수》화장품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가 깃들어있다.

혁명승리의 동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먼저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비롯하여 모든 설비들에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온 공장종업원들의 피타는 노력이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자력갱생의 동음은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승리의 동음!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휘황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각지 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무기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하겠습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구내에 250여점의 구호와 직관선전물을 게시하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수도의 려객수송문제를 풀기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켰다. 그리하여 종업원들모두가 높은 충정심과 애국의 마음안고 공장현대화전투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목표로 내세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궤도전차조립공정의 원격조종화를 실현하고 열처리공정과 전해도금공정을 자동화한것을 비롯하여 6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으로 SR전동기와 차륜구명가공중심반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하여 국산화비중을 90%이상 보장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늘임으로써 지난 1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대천군 은흥리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문제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에 반영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과학농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은흥리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우량품종과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농기계부속품도 생산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도록 하였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작업반들에 국부망을 구축하였으며 농장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선진농업과학기술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농장은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리당위원회는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장원들이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하게 하였다.

선흥식료공장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식료품생산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부문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내용들을 직관게시하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어 한산음료, 사탕, 과자생산공정을 무인화하였으며 생산공정들의 무진화, 무균화를 실현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0여개의 생산공정들이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생산토대를 훌륭히 갖추어 수입에 의존하던 수지병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식료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면서 해마다 수천톤의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설공학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최근년간 20여개의 과목을 새로 개척하고 수백건의 강의안을 다매체전침물을 리용한 전자강의안으로 작성하여 학생들을 실력있는 건설인재로 키우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90%이상의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학직을 소유하게 하고 대학생과학탐구상학금이 배출되게 하였다.

실천에서 학부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학부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높은 충정심과 실력으로 미래과학자키리와 려명거리 초고층살림집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강원도정보통신국, 와우도송배전소, 경공업설계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충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박봉주동지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국가과학원 석탄가스화연구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석탄가스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이바지할 과학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박봉주동지는 연구소의 실험공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여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과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국가과학원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언급되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박봉주동지는 또한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와 전국카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연구소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앞장서며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의 자재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박봉주동지가 전국카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

자력갱생정신과 이신작칙의 일본새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도건설위원회아래 여러 건재생산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연탄스레트광산에서는 온석생산을 기본적으로 결속하였으며 강남요업공장에서 매달 말계획 벽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평양건재공장, 평양주철관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동평양금속건구공장, 온천화강석광산을 비롯한 여러 건재생산기지들에서도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건재생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여러 건재생산기지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을 알고싶어 수도건설위원회를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생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일군들은 설비와 자재보장 등 조건보장문제를 첫 화제에 올린다. 하나 수도건설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달랐다.

《…생산성과는 조건보장에 많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만장약할 때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건재생산전투를 진행하면서 찾은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일군은 조건이 근본문제로 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곧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용암마냥 끓고있는 오늘 혁명의 지휘원들인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관을 벌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였다.

평양주철관공장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전시기에 비해 선철을 더 소비하면서도 생산실적은 종전보다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제품의 실수률이 떨어진것이 요인이였다.

하루빨리 제기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떨어진 실수률을 높여야 하였다. 여기서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그 사업을 공장에 과업이나 주고 총화나 짓는 식으로 대한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준것이다.

과학기술적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 련계를 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하나의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밤을 밝히며 론쟁을 벌리기도 하였다. 설비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해 신발장이 닳도록 뛰여다니였고 기술자들의 연구조건,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 그들이 맡은 과제수행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 나날 평양주철관공장에서는 규소철과 망간철의 합리적인 배합비률을 찾아내여 생산물의 질을 올리고 제품의 실수률을 훨씬 높이게 됨으로써 망흥덤개와 우수격자를 비롯한 건설자재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게 되였다.

평양수지건재공장은 원료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특히 일부 보조자재들은 거의 바닥이 나고있었다. 그렇다고 당장은 그 자재들을 어디서 가져올데도 없었다. 이때에도 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이곳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생산에 조성되였던 난관을 타개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련된 보조자재들로 지금까지도 각종 비닐관생산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하나의 사실만을 놓고도 이곳 공장에서 진행되는 내부예비동원사업의 폭과 깊이를 알수 있다.

비약과 혁신창조의 근본열쇠는 언제나 대중의 심장속에 있으며 대중을 움직이는 묘술은 바로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적역할을 하는데 있다.

하기에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은 동평양금속건구공장에서 일부 설비들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주변에 가져다놓고 보도블로크생산을 내밀 대담한 안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적극 지지해주고 앞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위해주었다. 특히 최근에는 위원회 당조직의 지도밑에 건설자재와 건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에 동원된 수십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차바퀴교체사업을 직접 맡아안고 전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건재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달보하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리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이신작칙의 혁명적인 일본새로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한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의 투쟁기풍, 사업기풍은 본받아야 할 좋은 경험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국철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림업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산판마다에서 통나무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5월에 계획보다 많은 통나무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준 이들은 6월에도 통나무생산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림업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필요한 통나무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통나무생산을 맡은 림산사업소, 경목생산사업소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것과 함께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풀어나가고있다.

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산판마다에서 벌목풍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면서 생산된 통나무를 건설장에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깊이 자각한 각 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장진, 도안림산사업소, 덕성, 허천, 정평, 금야, 수동, 홍원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설비들의 수리정비를 잘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상하차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통나무생산량을 늘여가고있다. 특히 장진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많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과감한 생산돌격전의 불길은 자강도림업관리국아래 랑림림산사업소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연사, 마양, 연상, 신양림산사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보장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사업소들의 일군들은 통나무생산에 로력과 설비를 집중하고있다. 로동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풍서, 갑산림산사업소,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관교, 회양림산사업소, 세포, 천내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면서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대흥경목생산사업소, 벽동림산사업소와 황해북도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감을 안고 증산투쟁, 돌격투쟁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계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당이 정해준 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데서 설비보장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일군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달려나가 화선지휘관의 자세로 앞제를 메고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을 혁신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자재보장이자 곧 생산실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성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혁명적총공세의 불길높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설비들과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각종 전기설비들과 애자류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설비마다에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것이 질보장이라는 관점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하나의 제품마다에 새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문천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발브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힘을 넣고있다. 생산자들은 어려운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발브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은 대안전기공장과 대동강전기공장에서도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장에 필요한 설비들을 지장없이 보장하는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특히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변압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성천강전기공장, 평양전동기공장과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각종 전동기와 전선류, 측정계기생산을 늘이고있다.

본사기자 최영조

증산돌격전으로 더 많은 세멘트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질좋은 각종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웠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생산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5월 세멘트생산계획을 완수하는데 적극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며 증산투쟁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매일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공정들의 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보장부문과 보수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합원로직장과 원료직장, 보수직장과 주강직장,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긴급히 제기되는 과제들을 제때에 수행함으로써 세멘트생산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특히 현행세멘트생산을 보장하는것과 동시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시일안에 소성로를 개건보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일정대로 추진시키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수십만의 각종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위훈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계속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순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290호 주체107(2018)년 6월 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선흥식료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
태천군 온흥협동농장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설공학부
황해남도소아병원
송화군산림경영소 양묘제1작업반
개성국수집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량강도 억진백화점
남포시송배전부 와우도송배전소
평양시설건설사업소 운수종합작업반
서호역
경공업설계연구소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관현악단

3대혁명붉은기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만수대혁명사적지관리소
평천구역인민병원
동평양백화점
청년두단종어사업소
보통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 청년분조
모란봉구역종합식당 모란봉국수집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자재상사
득장청년탄광 생필중대
대동군 성질협동농장 제3작업반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미곡작업반
회창군농기계작업소
삭주군 부정협동농장 파수작업반
의주군 파수전문협동농장 운전작업반
봉천군 신답협동농장 제1작업반
온룡군 송판협동농장 제5작업반
안악군 엄곶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사리원파수농장 제11작업반
사리원시 만금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강원도정보통신국
만포시 연상협동농장 제4작업반
룡강군상업관리소
라남은하피복공장
명간화학공장 성형직장
명간군 봉반협동농장 제5작업반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온정건설기계화사업소 자동차직장
함흥편직공장 2가공직장
마전유원지관리소
력성군 신흥공예전문협동농장 공예제1작업반
고원군 상산협동농장 제3작업반
백암군 통계협동농장 제1작업반
온천군 서화협동농장 제6작업반
라선시 라진지구 라진상하수도사업소
평양기관차대 운전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291호 주체107(2018)년 6월 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영예의 붉은기
강계시 동문소학교
길주군 룡성고급중학교
리원군 포항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신의주시 남상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일터의 자랑

함주영예군인일용품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크지 않은 지방공업공장의 이름이 한개 군의 지경을 벗어나 널리 알려지고있다.

바가지, 쌀함박, 바께쯔, 소랭이, 그릇, 50L짜리 통 등 형태와 모양이 다양한 여러가지 용도의 염화비닐제품들…

함주군은 물론 주변군들의 농촌들, 건설장들, 살림집들에 들려보아도 3대혁명붉은기 함주영예군인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좋다는 목소리들을 듣게 된다.

하다면 이 공장의 제품들이 호평을 받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요인을 여러가지로 짚을수 있다.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설비들의 기술개조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는것이 요인들중의 하나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의 생산설비들에는 각종 수지의 누음점을 측정할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그러다나니 기대공들이 지난 시기의 생산활동과정에 터득한 경험에 기초하여 온도관리를 진행하였다. 결과 열손실과 전력랑비를 초래하였고 제품의 질과 실수률을 높이는데도 지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 공장,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질좋은 제품을 펑펑 생산하는 일터로 전변시키자면 결정적으로 기술개조를 진행하여야 하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그 앞장에는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미더운 기술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해 며칠밤을 꼬박 기대앉에서 밝히기도 했고 때로는 필요한 기술자료를 얻기 위해 수십리 밤길도 웃으며 달려갔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오랜 기능공들도 이에 합세하여 한몫 단단히 수행하였다.

그 나날 공장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4단로투기와 중공성형기, 수평사출기들에 한소편콤퓨터에 의한 자동온도조종장치를 도입하였고 뒤이어 중요생산공정에는 밀폐식전열장치를 설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날이 갈수록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실적도 부쩍 뛰여올랐다. 전기와 로력도 절약하게 되였다.

지난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공장에서는 올해에 또다시 설비와 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 과정에 지난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수지관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엄광렬초급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공장의 어제와 오늘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이 과학기술이라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였습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당정책관철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였다. 안명진지배인은 설비들의 기술개조로 생산실적이 오른것도 좋지만 종업원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날로 향상되는것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설비들의 기술개조과정에 공장이 력을 보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오늘도 함주영예군인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안주씨리카트벽돌공장에서

주요생산공정의 조종계통을 우리 식으로 완성

주요생산공정들에 대한 조종계통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은 현존생산설비들의 조종계통을 새롭게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통합감시조종체계를 구축하는데서부터 우리 식 조종계통확립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혁신적이며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 기술창조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이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수력침강식모래선별기, 원료혼합기, 성형프레스조종체계들을 새롭게 개조하였다.

또한 현장모선형통합감시조종체계의 구성방안을 제기하고 생산 및 기술자료관리의 콤퓨터화를 실현하여 생산공정의 정보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공장에서는 씨리카트벽돌대차메아링을 대신하는 페놀수지에 의한 미끄럼베아링을 마음먹은대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바킹, 형타들을 자체로 제작완성하여 생산장성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종전의 직재기계불계통도 두선방식에 의한 수자식통신으로 개조하여 많은 자금과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통마를 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1)

식민지노예로부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격동적인 나날을 더듬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인민이 걸어온 영웅적투쟁의 70년력사를 숭엄히 안아보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격동의 나날이 있다. 온 나라가 민족재생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던 해방후 5년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심으로 하여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여 난생 처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해방된 새 조선의 주인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미처 모르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이 그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주체34(1945)년 10월,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강선제강소(당시) 로동자들은 일제놈들이 기계설비들을 파괴하고 기술문건들도 다 소각하고 달아난데 대해서와 자기들은 나라에서 공장을 접수하고 대책을 세워줄것을 기다리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을 정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이제부터 이 공장의 주인은 바로 동무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새 조선의 기둥이며 주추돌입니다. 해방된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투쟁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뜻깊은 교시가 로동자들의 무쇠가슴을 팡팡 두드렸다. 왜놈자본가의 악착스러운 채찍밑에서 마소와 같이 고역을 치르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자기들을 공장의 주인, 해방된 새 조선의 기둥이라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

크나큰 감격속에 일제가 폐허로 만든 제강소를 원상대로 복구해야 할 사람들도, 하루빨리 쇠물을 뽑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사람들도 다름아닌 자기들임을 깨달은 그들은 너도나도 주인구실을 하기 위해 떨쳐나섰다. 고향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던 로동자들은 서둘러 보짐을 풀어놓았다. 일거리를 찾아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로동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해듣고 제강소로 다시 모여들었다.

전기로복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전기로안에 녹아붙은 쇠물을 정대와 함마로 까내고 수많은 내화벽돌을 구입하여 로벽을 다시 쌓은 로동자들, 자금과 자재가 부족한데다가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수시로 나섰으나 지혜와 열정을 합쳐 풀어나간 기술자들…

하여 끊어진 전기선들과 파괴된 변전소 등 생산공정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강소를 찾으시였던 때로부터 두달만에 첫 쇠물을 뽑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강선의 로동계급이다.

강선의 첫 쇠물, 정녕 그것은 어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로동자들이 나라의 주인, 새 조국건설의 기둥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리는 힘찬 고고성이 아니였던가.

우리 로동계급이 파괴된 기계설비와 생산현장들을 복구하며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장한 모습으로 나설 때 민주조선의 새봄을 맞은 농촌들에서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로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며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를 높이 들고 알곡증산투쟁을 벌리였다.

청산된 지주와 반동들은 어디 지주없이 농사를 짓는가 보자, 너희들에게 소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보습이 있느냐고 하며 미친듯이 발광했지만 농민들은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열정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물갈이를 제철에 진행하고 해방된 조국의 대지에 첫 씨앗을 뿌려나갔다. 분여받은 땅을 기름지게 갈구고 곡식을 알심있게 가꾸어 소출을 높이였으며 로력이 모자라거나 종자가 없는 농민들을 도와주고 부림소와 농기구를 나누어쓰는것과 같은 집단주의정신을 적극 발휘하였다.

이 나날 전국적으로 근 8만개의 농촌생산반과 1만 7 000개에 달하는 농업증산돌격대가 조직되여 농민들을 농업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농촌정리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첫 풍년이 들어 전국적인 알곡수확고가 1945년보다 340여만석이나 더 많은 1 450여만석을 바라보게 된 풍요한 어느 가을날 자기 집 마당가에 산처럼 높이 쌓인 벼가마니들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재령나무리벌의 한 농민이 있었다.

해방전까지 지주집머슴으로, 일제의 간악한 《동척》의 소작인으로 피땀을 빨리워온 김제원농민이였다.

손끝에 피가 지도록 옥토벌을 가꾸어도 가을에는 땅없는 설움과 원한만이 가득 넘치던 나무리벌에 언제 이처럼 풍년이 들어본적 있었던가. 나라를 찾아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신 김일성장군님께 곡식을 가꾸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싶어 알알이 고른 서른가마니의 옥백미를 싣고 길을 떠난 김제원농민.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아시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천만석의 쌀보다 더 소중하시여 그이께서는 평범한 농민에 불과한 그와 따뜻한 담화도 하시고 친히 저택에 데리고 가시여 소박한 점심식사도 함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선 농민의 본분을 자각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김제원농민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신 감격의 사연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 수많은 농민들이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서해곡창과 분계연선마을에서, 동해바다가농촌들에서 달구지며 자동차며 기차의 차량에 낟알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왔다. 그 거세찬 흐름은 이 땅에 애국미헌납운동이라는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운동의 불길로 타번졌으며 그 뜨거운 애국지성에 떠받들려 나라의 첫 종합대학과 혁명의 골간후비양성의 원종장인 만경대혁명학원이 일떠섰다.

평강군의 정범한 녀성이 선구자로 나선 문맹퇴치운동과 정주철도종업원들이 발기한 애국적인 증산운동을 비롯하여 방방곡곡에 타오른 대중운동의 거세찬 불길들은 조국해방과 더불어 자기 힘을 자각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열, 애국열의 분출이였다.

재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였던 보통강의 흐름을 바꾸어놓은 보통강개수공사는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이 되여 민주건설의 꿈을 현실로 펼친 첫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력사적인 착공식날 이른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기발들과 삽, 곡괭이를 들고 보통벌에 애국의 제방을 쌓자고 웨치며 공사장으로 모여왔다.

착공식에 참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이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된다고 하시면서 해방된 조국을 우리 손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뜻깊은 연설을 하시자 우렁찬 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 붉고 푸른 기폭들이 세차게 파도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을 내리시여 공사의 첫삽을 뜨시자 전체 건설자들이 일제히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뜻깊은 착공식의 한 참가자는 후날 이렇게 말하였다.

《이날 나는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옵게 되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조국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는 진두에 나서시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온몸의 힘이 막 솟구치며 당장 산이라도 허물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이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새 조국건설에 몸과 마음 다 바쳐 떨쳐나선 우리 인민모두의 혁명적기상이고 열정이였다.

제망한 일제가 조선에 남겨놓은것이란 파괴된 공장과 농촌, 령 빈 금고뿐이였지만 우리 인민은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 조국건설의 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뜻깊은 그해에 창작된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널리 불리워졌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근로하는 인민이 주권을 잡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긍지와 자랑이 담긴 이 노래는 마을과 일터, 건설장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졌으며 우리 인민은 기세충천하여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과 여러 성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철도전기화문제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실 그때 철도를 전기화하는것은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된 후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로 나서고있었다. 공업 및 농업생산의 급격한 장성과 상품류통의 발전으로 1948년에는 철도화물수송량이 전해에 비해 141.5%로 늘어나고 1949년에는 다시 1.4배로 늘어날것이 예견되였던것이다.

모든것이 부족한 지금의 형편에서 구배와 곡선이 심한 구간부터 먼저 전기화를 하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개고-고인, 양덕-천성철도전기화공사가 시작되였다.

공사량은 방대하였다. 연장거리가 근 200리에 달하는 철길로반을 다시 정리하고 침목들을 교체하며 구배와 곡선이 심한 구간에는 경량레루대신 중량레루를 바꾸어 깔아야 했다. 그리고 전구간에 전주를 세우고 수십개소의 차굴을 정리하면서 전차선도 늘여야 했다.

전철자동은 돌격대를 꾸고 로반도 정리하고 침목도 교체하고 가파로운 산발을 타고 무거운 전주들을 메여 날라다 세웠으며 모진 추위속에서도 높은 철탑우에 올라가 송전선을 늘여나갔다.

수많은 시련이 막아나섰지만 개고-고인, 양덕-천성철도전기화공사는 불과 70여일만에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하여 통과능력이 가장 긴장하였던 정원선과 만포선의 철도수송능력은 무려 2배로 높아지고 렬차운행회수는 1.4배이상 뛰여올랐다. 당시 개고역과 양덕역에서 울려퍼진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철도전기화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였다.

나라의 첫 철도전기화공사의 시작과 때를 같이하여 이미전부터 준비해오던 평남관개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대한 문제가 내각결정으로 채택되였다.

공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공사장으로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고정로력만 하여도 1만 6 000여명, 거기에 수천수만의 지원로력까지 합쳐져 공사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작업도구라고는 기껏해서 삽과 삼태기, 질통 등이였으나 사람들의 사기는 높았다. 공사장마다에서 북을 치고 뽕파리를 울리며 공사를 시작하였다.

흔히 대자연개조사업은 기계의 동음이 요란하게 울리는것이 상례이지만 당시 평남관개공사의 첫 동음은 삽질소리와 뽕파리소리였다.

건설자들은 긴장한 로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로력과 자재들을 절약하였다. 공사속도가 빨라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 기록, 새 기적이 창조되였다.

대자연개조전투장과 건설장들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 때 탄광과 광산을 비롯한 여러 일터들에서도 해방전에는 상상도 못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시 검덕광산에는 일 잘하는 모범로동자가 있었다. 뼈도 채 굳기 전인 아홉살때부터 고역에 시달리다가 해방이 되여 난생처음 사람답게 살게 된 그는 자기에게 새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공화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리라 굳게 속다짐하였다.

증산투쟁에 앞장선 그는 1948년초부터 선진착암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6개월만에는 완전히 습득하고 광산의 암질조건에 적합한 발파법과 채굴법을 도입하여 새 기록을 세워나갔으며 그해 인민경제계획을 9배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1949년-1950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된 2개년계획수행기간 전국각지에서는 로동자개인별, 작업반별, 공장별증산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1949년에 여러가지 형태의 증산경쟁에 참가한 로동자들의 수는 수십만명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이런 속에서 1949년에 품종별광물생산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1950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발전하여 월평균생산이 전해에 비하여 1.5배이상 늘어났다.

또한 기계생산은 1944년에 비해 246%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장성을 이룩하였다.

1949년에 국가적으로 수십개 대상의 관개공사를 벌려 많은 밭을 논으로 풀고 관개면적을 늘여나갔으며 결과 그해 가물이 심한 속에서도 대풍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이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상한 창조력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결실이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공화국정권을 따르는 길에 행복한 삶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깊이 심어주었다.

※ ※

우리 인민이 새 생활을 시작한 해방후 5년의 력사적의의는 그 짧은 기간에 공업의 식민지적편과성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서 세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는데만 있지 않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나라와 혁명의 주인도 자기자신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철리를 깨닫고 자기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자각하였다는데 그 진정한 의의가 있다.

새 인간들의 탄생, 그것은 우리 인민이 전쟁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게 한 근본바탕으로 되였다.

그렇다.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로부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위대한 인민으로 자라난 력사의 그 나날이 있어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가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으로 수놓아진것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5일 김영웅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과 허경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총련의 민족교육을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

【모스크바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루쥬니끼경기장에서 있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였으며 로씨야대통령과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로씨야팀과 사우디 아라비아팀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대회는 7월 15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13일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는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를 경축하는 로씨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음악회가 있었다.

김영남동지가 뿌찐대통령과 국제축구련맹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도 보천보체불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계속 진행된다.

17일(일요일)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는 조선인민군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사격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이날부터 예술체조 성인급경기가 남포체육관에서 19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 성천강체육단에서 교예체조 성인급 남, 녀경기가 있게 된다.

남포체육관에서는 20일부터 레스링 성인급 남, 녀경기가, 21일부터 유술 성인급 남, 녀경기가 시작되며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는 21일부터 수구 성인급 녀자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는 15일 의례방문하여온 마흐디 쏠리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와 세예드 모흐쎈 에미디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기술혁신봉화상체육경기대회 개막

기술혁신봉화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각 도들에서 선발된 2 500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롱구, 탁구, 정구를 비롯한 10여개 종목의 경기들에서 승부를 겨루게 되는 이번 경기대회는 평성, 함흥 등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이 15일 청진시에서 있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리히용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오경석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청진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체육성 부상 황상호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육중시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실전훈련의 용광로속에서 단련된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 전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감독, 심판원들이 경기조직과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고 원칙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 좋은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청진경기장에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사이 남자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전국가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폐막

전국가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가 폐막되였다.

전람회기간 참가자들은 가구 및 건구, 음향건재의 주체화, 다양화, 다기능화, 질제고를 실현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건축설계와 가구설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룡남산건구제작소, 영광가구합영회사 등에서 내놓은 책반치개가 달린 련석의자, 자동출입문, 책상을 비롯하여 다기능화된 가구, 건구들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고 다루기 편리하면서도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황해북도,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경소마그네샤제품들인 이불장, 탁구판, 음향장식판들과 한면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 내놓은 목제응접음재 등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시품들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람회기간에 발표된 우수한 론문들중에는 《개방식사무공간의 입식가구형성설계》, 《가구제품의 조형 및 구조설계를 일체화하여 최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목재가구생산에서 품질개선방법》 등이 있다.

폐막식이 15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 참가자들과 제품들에 컵과 증서들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동지는 폐막사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의 가구와 건구설계 및 제작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마흐디 쏠리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만경대고향집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김일성주석각하는 숭고한 사상을 지니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이의 일가분들도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평양교원대학, 류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대중이 따르는 일군

령대탄광 제품관리과 과장 최용일동무는 짧은 기간에 단위를 전투력과 단결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100여m의 옹벽을 쌓고 배수체계를 완비해놓아 장마철에 저탄장석탄이 류실되는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수t적재량의 삽차를 마련하여 석탄상차시간을 앞당기고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였다.

뿐만아니라 집짐승우리며 온실, 메기서식장을 훌륭히 꾸려놓아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킨것을 비롯하여 그가 해놓은 일은 참으로 많다.

종업원들은 이런 그를 우리 과장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로동통신원 김 봉 일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의학연구원에서

방도를 내놓는 일군이 진짜 실력가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높이 들고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보건부문에서도 하루빨리 첨단의학과학연구성과들이 끊임없이 나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산하연구소들이 훌륭한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있는 의학연구원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어야 하며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산하연구소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의학연구원은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고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과학연구기관이다. 그런것만큼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 의학연구원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여러 연구소들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그곳 연구사들로부터 의학연구원 책임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였다.

일군들이 늘 어깨에 만짐을 지고 앞장에서 달리고있기때문에 과학연구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모든 일이 얼음판에 박밀듯 쭉쭉 풀려나간다는것이였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당책임일군에게는 자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여기에는 매 연구소들의 과학연구사업은 물론 대중체육, 군중예술활동, 후방봉급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으며 매일 그것을 보면서 주인들보다 앞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여다닌다는것이였다.

물론 책임일군들이 산하연구소들의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원의 전반사업을 책임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보다 바쁜 책임일군들이 해당 단위의 일군들만큼 실태를 손금보듯 파악한다는것은 사실 조련치 않다.

하다면 의학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은 어떻게 되여 어깨에 만짐을 지고 앞장에서 달리게 되였는가.

몇달전 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연구소일군들의 주간사업총화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날 모임에는 주간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단위의 일군들도 앉아있었는데 그들은 원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루이틀에 완성될 연구사업도 아닌데 조건이 되면 그때 마력을 내여도 되지 않는가고 속타산을 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그런데 당책임일군은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주간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부터 내놓는것이였다. 해당 연구사들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해결책을 찾은 책임일군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순간에 앞이 환히 틔였고 조건타발만 하던 자신들의 일본새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흔히 우리는 생활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라는 말을 자주 하군 한다. 우리 일군들이 걸린 문제가 생길수록, 해결방도를 모색할 때마다 대중속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그들과 무릎을 마주한다면 얼마든지 뚫고나갈 길이 열린다.

이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기 위해 책임일군은 아래단위 일군들보다 더 깊이 연구사들속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당정책관철의 묘술을 찾아냈던것이다.

최근년간 여러 연구소들에서 눈에 띄는 연구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의학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앞장에서 연구사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책임일군들의 이러한 이신작칙의 사업기풍은 연구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마력을 내도록 하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의학연구원산하 모든 연구소들에서의 생활은 빡빡하게 흘러갔다. 그러다보니 어찌다가 연구소에서 노래모임이나 체육경기를 조직하면 시간이 없다느니, 재간이 없다느니 하면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연구사들이 적지 않았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실천이 검증한 진리가 아닌가. 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은 연구소의 분위기를 돌려세울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소별, 당세포별로 노래모임과 체육경기가 주마다 조직되게 되였다.

책임일군들은 연구사들이 점심시간과 연구사업의 쉴참에는 탁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도 자주 진행하도록 주간계획도 작성해주었다.

또한 경희극 《산울림》에서 나오는 조합의 전망을 놓고 한 뜨락에서 펼쳐지는 청년들과 보수적인 일군들의 관이한 두 토론광경을 비롯한 여러 화면들을 연구소의 모든 일군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혁신과 보수, 새것과 낡은것과의 극적인 대조속에서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고 실현해나가지 못하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여 나중에는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까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경희극이 일군들에게 큰 여운은 참으로 컸다. 이것은 일백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연구소들에서 연구소의 안팎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나게 되였다.

그리고 하나의 연구종자를 선정하여도 오늘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현실에서 온을 낼수 있는가를 깐깐히 따져보는 혁신적인 기풍이 연구소안에 차넘치게 되였다.

이밖에도 전자도서실을 잘 꾸려주어 연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질과 실력을 높여준것, 연구소별로 후방봉급사업에 대한 경쟁을 붙이여 연구사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준것 등 이곳 책임일군들이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대중을 이끈 실례는 수없이 많다.

지금 연구원의 많은 연구사들은 이런 책임일군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연구사업을 해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해낼수 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높게 하는 거세찬 불길이 되여 하루빨리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로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기 위해 만짐을 지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닌 이곳 책임일군들에 대한 대중의 정확한 평가이다.

당의 보건정책관철의 앞장에서 대중을 옳게 이끌어가는 의학연구원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직사업을 잘하는 일군도 필요하다. 하지만 방도를 내놓는 능력에 일군의 진짜실력이 있다. 다시말하여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에 맞게 당정책관철의 묘술을 찾을수 있는 혁신적안목과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단위사업을 주도해나갈수 있는 지략과 능력을 갖춘 일군들이라야 집단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이다.

의학연구원의 일군들처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뛸 때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는 보다 훌륭한 결실이 이룩될것이며 그만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도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서

참신한 조직사업과 대중의 열의

최근 어린이영양판리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어린이들의 영양판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조사장악하고 그들의 영양판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영양판리연구소에는 이미전부터 연구력량이 그쯘하게 마련되여있었다. 하지만 통마도 탈줄 알아야 하듯이 그 연구력량이 더 큰 온을 낼수 있게 키잡이를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래서 이곳 일군들은 올해에 본보기를 창조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한것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연구실들에서 최단기간내에 더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하여 일군들은 첨단기술제품개발실을 새롭게 꾸리는 한편 연구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었다.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제품개발실을 본보기로 정하고 과학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연구사업에서 능률을 내지 못하던 일부 연구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저저마다 분발하여 대담하게 첨단연구에 뛰여들고 현장에 달려나가 걸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연구소와 공장을 오가며 즐기찬 연구활동을 벌리였다.

본보기단위를 정하고 하나의 불씨가 열, 백의 불길로 되게 하려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더 큰 성과는 연구소에 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세워진것이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는 자기 단위의 인재를 중시하고 밀어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본보기로 정한 첨단기술제품개발실의 구성상태를 보면 모두가 20대, 30대의 젊은 연구사들이다. 물론 과학탐구의 길에서는 첫걸음을 내짚은데 불과한 이들이다. 하지만 일군들은 대담하게 20대에 박사가 된 방유일동무를 실장으로 임명하고 실력이 정평한 젊은 연구사들로 개발실을 꾸리였다.

결국 부단히 새것을 지향하고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젊은 인재집단을 대중앞에 내세운것으로 하여 연구소에는 새로운 기운이 차넘쳤다. 즉 젊은 연구사들은 그들을 따라앞서기 위해 더더욱 연구사업에 열중하고 나이많은 연구사들은 또 그들대로 젊은 인재집단에 뒤지지 않으려고 분발하였다.

누구라 할것없이 인재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기 위한 매 연구실 연구사들의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일군들이 올해사업에서 다음으로 모를 박고 내밀고있는것은 연구성과들이 현실에 제때에 도입되여 알찬 열매들로 주렁지게 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공장을 활성화하는 문제였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이 공장의 동음은 거의 멎어있다싶이 하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생산공정들을 무단히 확립하여야겠으나 과학연구사업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당에서 공들여 꾸려준 공장이 큰 온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이룩하고도 연구사들은 다른 단위에 생산공정을 꾸리는 형편이였다.

앙양된 연구사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하여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위생학적요구에 부합되게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콤콤들을 늘이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걸린 문제를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켰것 역시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은 새로운 키크기알약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어린이영양판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는 훌륭한 결과를 안아오기마련이다.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고있는 어린이영양판리연구소 일군들의 사업은 참으로 본받을만하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의약품을 더 많이

청진림상의학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많이 연구해내야 합니다.》

청진림상의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곳 일군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치료약물들을 대신할수 있는 효능높은 우리의 의약품을 자체로 개발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과학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기초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약제에 대한 내성으로 하여 치료효과가 낮았던 종전의 위궤양치료약물을 대신할수 있는 유문라선균감염증예방약을 새로 개발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수입에 의존하던 히알루론산생산용균주의 갑작변이제를 우리 나라의 원료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내과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소화기질병의 하나인 만성무석성담낭염을 고칠수 있는 새로운 치료약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새 약물의 항염증작용, 아픔멎이작용과 그것이 장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림상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창조적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와 함께 만성위장염을 고칠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약물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약재로 위십이지장궤양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정보연구실의 연구집단과 기초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암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암을 고칠수 있는 치료약물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로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첨단기술제품개발실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항암주사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개발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창조적열정에 의해 의학과학연구성과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첨단의료기구개발을 틀어쥐고

의료기구연구소에서

최근 의료기구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우리 식의 생물공전진단치료기를 개발한 기세드높이 새로운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질좋게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치료예방사업에서 절실히 필요되는 의료기구들을 개발하여 현실에 적극 도입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김동철소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 독점하고있던 생물공전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액시머레이자치료기용수술칼에 대한 연구사업을 최단기간내에 완성하도록 연구집단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의용재료연구집단과 전자의료기구연구집단은 표창산의료기구공장으로 달려나가 현장일군들과 힘을 합쳐가며 안과치료기용수술칼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 개발된 의료기구들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현장에서 연구사들과 함께 걸린 문제를 토론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가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연구집단의 열의를 더욱 앙양시키는 밑불이 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개발되였던 추간판탈출증교주파소작기를 림상실천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게 갱신한데 기초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짧은 기간에 간섭저주파치료기, 휴대용교주파소작기 등 수십종의 의료기구들이 제작완성되여 의학연구원창립 60돐을 맞으며 진행한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12유도심전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이처럼 연구소는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식의 첨단의료기구개발사업으로 들끓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합성제약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10여가지 의약품의 원료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박광호, 김명철동무들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신심드높이 연구사업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소독약과 물질대사약연구집단의 연구사들은 두꺼, 세룩의 일감을 맡아안고 실험실과 생산현장을 오가면서 자신들의 열정을 쟁그리바쳐가고있다. 연구소적으로 제일 어려운 연구과제를 자진하여 맡아나선 고경준, 차성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합성공정을 확립하여 인민보건전선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연구사들의 비상한 각오에 의하여 많은 연구과제들이 결속단계에 이르고 제약공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연구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림상실천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여러가지 중요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고있다. 연구사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격식과 틀이 없이 진행되는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온 연구소를 들끓게 하고있으며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의하여 지난 시기에 비하여 몇배에 달하는 생산성과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본사기자

강계청년야외극장건설 적극 추진

자강도에서

자강도에 강계청년야외극장이 일떠서고있다. 5 000석능력의 극장에는 연혁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화술소조실, 성악소조실, 기악소조실 등이 꾸려지게 된다.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안고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도안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서는 강계청년야외극장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강력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을 빠른 시일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야외극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기 위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강명섭, 최영권, 리창심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리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맞잠이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기계수단들을 총동원하고 립체전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기초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성간군, 자성군, 고풍군, 전천군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습식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강계시, 희천시, 자성군의 청년돌격대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매일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습식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청년돌격대 기술중대의 전투원들은 건설의 선행공정을 맡아나선 책임감을 안고 철근가공과 조립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각종 규격의 휘틀을 지체없이 제작완성하여 건설현장에 보내주고있다.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군소재지꾸리기를 근기있게 내밀어

선천군일군들과 근로자들

선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군소재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4월 로하리구간의 도로를 전변시키고 철천천의 지류들을 정리한 그들은 읍지구의 아빠트와 단층살림집들에 대한 외장재바르기, 물장식을 특색있게 하여 군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켰다.

지난해에 군에서는 수십리나 되는 도로를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새로 건설하고 많은 암거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다리와 철길다리들을 기술개건하여 놓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양묘장에서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 산들에 옮겨심고 보호관리사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군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군소재지를 꾸리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고있었다. 공사량이 방대하고 거기에 드는 자재만 해결하자고 해도 아름찬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나무심기도 하면서 로하리구간의 도로를 전변시키는것과 함께 철천천지류정리공사와 수십개의 다리, 여러개의 철길다리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 등 해야 할 일감이 적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오영철군당위원장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들인 일군들이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군에서는 군소재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변시키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신동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산발마다에서 나무심기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 로하리구간의 도로를 기술개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개되였다.

일군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는 한편 기술개건해야 할 도로들을 밟아보면서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올해 봄철나무심기를 계획대로 하였을뿐아니라 로하리의 도로도 번듯하게 일신시켰다.

일군들은 이 성과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군안의 수십개의 다리와 여러개의 철길다리를 기술개건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에서는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세멘트와 철근, 외장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다리와 철길다리를 기술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밀고나갔다.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군책임일군들은 굴착기와 삼차를 비롯한 설비들을 동원하여 높아진 철천천지류들의 바닥을 파내기 위한 공사부터 선행시키도록 하였다.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온 군이 철천천지류정리공사에 떨쳐나섰다.

열렬한 향토애를 안고 공사에 떨쳐나선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은 맡겨진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공사가 여러 지구에서 벌어지는 조건에서 실무능력이 높은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꾸려주고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맡은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자 군일군들은 요구성을 더욱 높이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켰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맡은 장석공사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군소재지를 꾸리는 사업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도 맡은 공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불과 며칠동안에 바닥파기와 제방쌓기, 장석공사 등 아름차고 방대한 철천천지류정리공사를 와닥닥 해제끼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군에서는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5월초부터 군소재지에 아빠트와 여러동의 공공건물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소재지를 꾸리기 위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건설력량이 현장에 전개되였다.

도당위원회일군들도 군소재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군소재지의 면모는 더욱 일신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아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온 겨레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받아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4.27선언리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이하고있다.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였다.

력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6.15의 기치밑에 전진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였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겨 마침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에 진행된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한번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이다.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력사의 새 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틀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틀고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있는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2.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나갈것이다.

오랜 세월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여지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와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 펼쳐진 경이적인 륙대사변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함께 추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장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회합을 활성화하여 우리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서 판문점선언리행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도록 할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리행을 위한 적극적인 련대활동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선언리행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것이다.

3.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는것을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력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며 북남사이에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림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였다.

우리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북, 남, 해외 통일운동련대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련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갈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8년 6월 15일

북남수뇌상봉들을 슬로벤스꼬단체들이 축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을 축하하여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 및 연구협회, 슬로벤스꼬조선친선협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정세의 긍정적발전을 주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공동선언의 발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의 결실이다.

얼마전에는 판문점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4.27선언이 채택되여 조선반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은 하나다!

【조선중앙통신】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들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야말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통일된 강토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겨레의 념원이 실현되는 길이라고 하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을 채택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우리 민족쇠로돌기운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공동번영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한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하루빨리 채택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각 정치세력들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련이어 론평, 담화들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면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마구 헐뜯고 무정하며 선언지지결의안의 《국회》통과까지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얼마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채택을 파탄시킨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다된 밥에 재뿌리는것》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민중당성원들은 《자유한국당》앞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아예 청산해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여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정계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앞장설것이라고 다짐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밝히였다. 단체는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것이 민중의 열망이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오늘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짜아내리지 못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자유한국당》의 반통일적인 망동을 짓무시고 선언리행을 위한 범민중적운동을 더욱 완강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도전은 악랄하지만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국제적범위에서 활발해지는 반마약투쟁

세계적으로 마약사용이 성행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14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마약사용자수가 2013년에 비해 5배 늘어났다.

카나다에서는 마약람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마약람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약 4 000명에 달하였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2 920여명이 마약람용으로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세계적범위에서의 마약사용실태의 단적인 실례이다.

마약사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머리를 쳐들고있는 주요원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마약제조 및 밀매범죄행위가 나날이 우심해지는데 있다.

국제적으로 반마약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다.

올해 3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마약대책문제를 토의하는 유엔성원국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120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집행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의 원료인 아편의 생산량이 지난해까지 2년동안에 2배 가까이 늘어난데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것은 전례없는 생산량으로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기이다.》고 하면서 반마약투쟁에서의 기본타격대상을 짐찍었다.

모든 나라들이 반마약투쟁에서의 기본을 마약제조 및 밀매행위에 정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지난 5월 방글라데슈경찰은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마약소탕작전을 벌렸다. 그 과정에 마약관련범죄자 100여명을 체단하고 수천명을 체포하였으며 마리후아나, 헤로인 등 적지 않은 량의 마약을 압수하였다.

이란경찰도 반마약작전을 벌려 3.7톤의 마약과 많은 무기를 압수하고 5명의 밀수업자를 체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반마약투쟁의 결과 6월 2일까지의 3일동안에 9t 350여kg의 각종 마약이 몰수되고 24명의 밀수업자가 붙잡혔다. 꾸바, 에스빠냐, 마로끄, 알제리, 타이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마약투쟁이 맹렬히 진행되고있다.

마약소탕작전과 함께 사람들속에 마약의 해독성에 대해 알려주는 선전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반마대통령은 마약과의 투쟁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마약람용이 주민들의 생명을 해치고있다고 하면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밀매하는자들을 적발하여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속에 마약의 위험성을 광범히 선전하며 특히 마약에 중독되면 정신적불구자가 된다는것을 똑바로 인식시키는것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자까르따시에서는 마약을 소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서 외국국적의 선박으로부터 압수한 2.6t의 마약을 불태워버렸는데 이것은 최근년간에 가장 많은 마약을 소각한것으로 된다고 한다.

오늘날 마약밀매행위는 국경과 국경을 넘어 세계적범위에서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사회가 반마약투쟁에서 긴밀한 협력과 뉴대를 유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로씨야와 에꽈도르는 마약반대투쟁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란과 스리랑카도 보건 및 의학과학, 교육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반마약투쟁에서의 공동행동을 강화할데 관한 협정들에 조인하였다.

마약밀매범죄행위가 더욱 은폐되여 교활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마약반대투쟁과정에 이룩한 좋은 경험과 성과들을 교환하는 움직임도 보다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올해 2월 로씨야에서는 중앙아시아나라들의 마약수사관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유엔과 여러 나라들의 협력하에 진행된 강습에는 까자흐스딴, 우즈베끼스딴 등 여러 나라들에서 온 경찰들이 참가하였다.

오늘 마약범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엄중한 범죄의 하나로 취급되고있다. 그것은 마약이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과괴하고 온갖 범죄행위를 조장시켜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악성종양과 같기때문이다.

마약범죄의 근원을 뿌리뽑고 사람들의 건강과 사회를 보호하며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반마약투쟁의 도수를 나날이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물질적번영》에 대하여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인민적이며 부패한 사회,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리상사회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지난 세기 말엽에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헌란한 겉모습에 현혹되여 자본주의정치경제방식을 받아들이였다.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다당제를 실시하였고 기업제들의 창발성제고를 운운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해체하여 사적소유로 전환시켰다. 이 나라들은 이러한것들이 《민주주의》를 최대로 발양시키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안정이 보장되고 물질적번영을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생산수단이 특권자, 투기업자를 비롯한 소수 착취자들에게 집중되였다. 짧은 기간에 백만장자들이 생겨나고 경제는 파국상태에 빠져들었다.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실업과 빈궁에서 헤매이게 되였다. 다당제로 각이한 정당들과 파벌들이 생겨나 서로 반목질시하며 세력권확장에 미쳐날뛰였다. 나라는 사분오렬되고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판을 치게 되였다. 온갖 사기협잡군들과 범죄자들이 제세상을 만난것처럼 날치게 되였다.

지배와 예속관계, 강한자가 약한자를 잡아먹어제끼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던 나라들의 운명은 이렇게 되였다. 인류가 나아갈 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것이 력사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 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가짜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모순이 가득한 사회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갈등과 호상견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관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부르죠아의회제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표시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그들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작성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당제도 허울에 불과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여러 당들이 서로 엇바꾸어가며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간판만 다를뿐 다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

대독점자본가들과 그 사환군들이 모든것을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은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유를 구속하고있다.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개인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자료들을 수집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돈있는자들과 소수 착취계급이 누릴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자랑하는 《물질적번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악성종양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은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곳이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있다. 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은 항시적으로 일자리걱정, 치료받을 걱정, 집걱정, 먹고 살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로동자가 온전한 집 한채를 마련하자면 수십년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번 돈을 다 밀어넣어야 한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병이 나도 돈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부유한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는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막대한 재부를 랑진하고있다.

자본주의야말로 돈많은 부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썩고 병든 사회이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번영》을 자랑하는 자본주의의 진짜모습이다. 이런 사회가 인류가 바라는 리상사회가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이다.

겉으로는 번창하고 발전하는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회를 썩게 하고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대독점자본가들은 리윤획득과 치부의 공간인 시장확대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의도적으로 변태적인 생활수단들을 만들어내여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마약,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청소년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마약과 알콜을 람용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이 마약과 알콜등에 절어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되여 타락한 생활을 하는 현상을 놓고 부르죠아번호론자들까지도 불치의 고질병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은 사람들을 자본의 노예로,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는 로동도구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막대한 돈을 들여 반동적인 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이때문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있다. 돈을 위해서는 부모처자도 모르고 범죄의 길에 서슴없이 뛰여드는 인간추물, 인간오자품들이 늘어나고있다.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지고 동물화, 야수화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사회적풍조로 되고 패륜패덕과 사기협잡, 폭력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다. 이웃들간에 칼부림이 벌어지고 부자간, 형제간에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다. 고상한 사회적풍조는 찾아볼수 없고 동물세계와 같은 말세기적인 생활풍조만이 지배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바로 이런 세상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번영하는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며 영원한것도 아니다. 자본주의는 멸망에로 줄달음치는 부패한 사회이다.

리학남

야수화되여가는 반동사회

일본에서 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일본의 출판보도물들이 그에 대해 끊임없이 전하고있다.

6월 3일부 《도꾜신붕》에 실린 《살인혐의로 전 지바시의회의원을 다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기로 하자.

내용을 보면 지바시의 한 선술집에서 지난 5월 4명의 가족이 칼에 찔리우고 그중 유치원생인 처녀애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자는 다름아닌 가족성원으로서 전 지바시의회 의원이였다.

《가족과 사이가 나빴다. 처음부터 4명 모두를 죽일 생각이였다.》라는 범죄자의 진술은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하였다.

신문에는 또한 《아버지의 시체를 방치한 혐의로 아들을 체포, 어머니의 시체도 방치하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1월이래 고령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시체를 침실에 내버려둔 범죄자의 집에서 행방불명되였던 어머니의 시체도 발견되였다. 시체는 이미 부패절대로 부패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보다 며칠 앞서 《요미우리신붕》은 아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3년동안 내버려둔 사실을 보도하였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사멸된 일본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것은 이뿐이 아니다. 하루밤을 자고깨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에 접하군 한다.

얼마전 아오모리현 하찌노헤시의 로상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남성이 발견되였다. 사람들을 경악케 한것은 칼에 찔린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름아닌 안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생긴것이라는것이다.

또한 도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느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렀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었다. 범죄자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자 자기의 신변상위험을 느끼고 아들의 몸에 서슴없이 칼을 박았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에 찌들대로 찌들어 부부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패륜패덕의 서식장이 바로 일본이다.

사실들은 지배층이 말끝마다 《문명》을 떠드는 일본사회가 야수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박예경

중국에서의 빈곤구제사업

중국의 사천성정부가 11일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성에서는 22가지의 빈곤구제계획을 실천하려고 하고있다. 이것이 실천되면 34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성에서는 100만명이상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새로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반부패투쟁을 강화할 림장 강조

케냐아대통령 우후루 케냐아타가 최근 한 연단에서 반부패투쟁을 강화해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림장을 밝혔다.

사회기금을 횡령한 50여명의 협의자들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법적절차가 추진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도적놈들에게는 자비가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되찾은 자산이 전부 본래의 개발목적에 돌려질것이라고 말하였다.

반테로작전

이란안전군이 8일 수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질서와 불안정을 조성하려고 획책하던 27명의 테로분자들을 체포하고 각종 무기와 수류탄, 폭발물 등을 압수하였다.

최근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는 쿠르디스탄주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해외에서 침투한 9명의 테로조직성원을 체단하였다.

주일미군전투기 추락

일본 오끼나와현의 카데나미공군기지에서 려륙한 미군전투기 《F-15》가 11일 비행도중 추락하였다.

전투기는 현의 남부수역에 떨어졌다.

로씨야 서방의 대로씨야제재 비난

로씨야의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최근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서방의 대로씨야제재를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서방의 제재에 단순하게 대응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제재가 로씨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동기에 의해 실시되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재가 로씨야에 손해를 주고있지만 그것을 실시한 나라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로씨야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국가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고수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남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 표명

나이제리아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가 최근 마로끄를 방문하였다.

방문과정에 그는 마로끄국왕 모하메드6세와 만나 회담을 하였다.

회담에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은 남남협조의 본보기를 창조해나가려는 림장을 밝혔다.

그들은 2016년 12월 마로끄국왕의 나이제리아방문이후 두 나라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농업, 광업, 비료생산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 평가하였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의 가스수송관부설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은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수리아에 대한 《반테로련합》의 계속되는 공습만행

수리아에 대한 《반테로련합》의 공습만행이 계속되고있다.

11일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이 하싸까도 남부지역을 공습하여 어린이와 녀성들을 비롯한 18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5일에도 《반테로련합》의 공습으로 1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폭우

인디아의 케랄라주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11일현재 추적으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 20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0945(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